

중학생의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

배진주 · 박영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원대학교*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Body Image and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Bae, Jin-Ju · Park, Young-Soo*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body image and their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to understand their perception of body image and desire for plastic surgery, and provide some data needed to warn against reckless plastic surgery and guide the students effectively. For those purposes, an examination was conducted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levels of body image,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and perception levels of body image and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The subjects were drawn from four middle schools located in two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Total 922 boys and girls were surveyed on a questionnaire, which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test of previous literature, reviewed for appropriateness, and tested for reliability and reasonableness. The body image on the five scale was greater as the perception level was higher. The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was also greater as the scores were mor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levels of body image were examined. The third graders showed the highest perception level, being followed by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The girls were more perceptive than the boys, and those who were extrovert were more perceptive than those who were introvert. Those students whose parents earned 2 million won or more a month and who adapted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had a higher perception level. In a word, the girls from the middle class that were well adapted, felt happy, and were extrovert had a higher perception level of body image.

Second, the connection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were investigated. The third graders were the most admmissive of plastic surgery, followed by the second and first graders. That is, the upper graders were more admmissive of plastic surgery. In addition, the girls were more admmissive than the boys, and those who were extrovert were more than those who were introver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monthly income of the parents, grades, adaptability to surroundings, and happiness, which results almost resembled the findings of a study conducted on adults.

Third,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found between the perception levels of body image and the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To elaborate, the higher the perception levels were, the lower the allowance was, and vice versa. As for the items, the subjects showed more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when they scored less in the item of caring about appearance, importance of looking pretty to others, and efforts to improve appearance. When they had a low value of body and easily felt tired, they were highly acceptive of plastic surgery. The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was also great when their perception was much of how healthy they felt, how important they felt about their bodies, how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appearances, how they evaluated the appearance of others, how much they were satisfied physically, and how much demanding they were for physical changes. Meanwhile,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the allowance and physical attraction, the degree for one's activities to be hindered, and sickness.

In short, the demand for plastic surgery was 41% for the girls and 20.2% for the boys. Just as the study on adults reported, those who had a low or negative perception of body image were more acceptive of plastic surgery. The middle school students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their bodies with the lowest perception level at 2.91 and the highest at 3.21. Their individual allowance for plastic surgery was related to their individual body images, which were in turn affected by the mass communication,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social values. Thus it's necessary for the entire society to try to improve or change the overall perception. Helping measures should be taken so that the students can form right sense of values about their bodies, avoid the obsession with appearance and appearance-based evaluation, and exercise righteous criteria against humans beings and things.

In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hey need to develop such questionnaires or tools as can measure the body image of teens and fit the reality. Moreover, body image improvement programs should be more diverse and more applicable to teens. Despite the consistent reports that prove the correlations between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there has been little effort to apply such factors as experience of the life of the disabled,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disabled and at the hospitals, and others that can induce changes to body image to the body image improvement programs. In the future, comparative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on body image and plastic surger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열짱, 몸짱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외모 지상주의가 모든 개인적,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되면서 구분별한 성형수술의 열풍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케이블 TV 방송의 '100일 만에 미녀 만들기'라는 성형수술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3,000명이 모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강도는 수배된 전단지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팬클럽에 1만여 명의 회원이 모일 정도로 외모중심주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매스컴의 영향으로 예쁘고 날씬하고 잘생긴 연예인이나 모델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이들을 동일시하는 청소년들이 외모만으로 평가의 기준을 삼는 예가 늘고 있다.

"인간의 외모는 곧 운명이다"라고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도 있고, 많은 학자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더 착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확신에 차 있어 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변금순 외 1999: Dion, Berscheid and Walster 1972: Adams 1977). 인간의 신체 모습이 각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자존심, 대인관계, 행동양식 등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2차 성장에 의한 급격한 신체의 변화, 사회성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이므로 신체상에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다. 신체상은 신체 개념을 포함한, 자아에 의한 자기 신체 지각을 일컫는 것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이다(Kolb 1982). 긍정적인 신체상은 건강한 자기 개

념, 자기 신뢰와 사회적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신체상은 자기존중감, 자기 가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체상에 위협을 받게 되면 정체감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생활, 모든 사회관계 및 성숙, 질환, 성격변화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신체 자아에 대한 만족감은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제인 자기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낄수록 신체적 부분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느낌들은 커지게 된다(송인섭 1990). 신체상은 청소년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상적인 신체상과 현실의 신체상과의 차이가 적을수록 정서적으로 만족하게 된다. 부정적 신체상과 신체적 불만족, 기형 등은 기능 장애, 자살, 정신적 장애, 학습장애,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상의 형성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건전한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해야한다(권기덕 1999). 그러므로 건전한 신체·정신적 발달, 학교와 사회에 대한 적응, 적절한 교우관계 형성, 자신감과 인격 형성을 위해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체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건전한 신체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는 시대와 문화의 변화, 생활의 변화로 서구적인 美의 기준이 널리 유입되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루키즘(lookism) 즉, 외모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만연하여 과거 우리가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기시 해오던 사상에서 벗어나 몸을 새롭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 몸의 관리가 현대인의 생존력의 일차적 지표가 되고, 젊고 아름다운 육체를 가꾸는 것이 일부 사람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필수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자기의 몸을 보다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것은 인

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인데 이를 거부하거나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형수술이 경품으로 등장하고 입학 선물이 되며, 성형수술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고, 수술 후유증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형수술 열풍에 휩싸여 국제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형수술의 목표는 신체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일차적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다. Stuart(1979) 등은 신체상을 변화시키고 아울러 자아 개념까지도 변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성형수술을 제시하였다. 이미 우리 주위에서는 성형수술을 했거나 할 계획인 청소년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방학 때가 되면 엄마의 손을 잡고 오는 초등학교생에서부터 성형수술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들까지 성형외과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성장 발달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성형수술이 더 큰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관심과 실태가 이런 만큼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과 올바른 신체상의 정립이 필요한 때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성형수술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심리적인 기전, 신체상과 성형수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무분별한 성형수술에 대한 조연과 효과적인 생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신체상 이해를 통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외모나 신체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도, 조연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인 신체상과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부적응, 학습 장애, 왕따, 우울증, 자살 등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까지도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지각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형수술 허용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중학생의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연구대상 및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 (1)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A시, G시 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중학교 학생들만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에 소재한 중학교 4개교(안양시 2개교, 군포시 2개교), 960명으로 무선 표집법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무성의한 응답이나 완성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922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급격한 성장 발달과 2차 성징의 출현으로, 중학생 시기가 가장 불완전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신체상을 갖는 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즉 신체상 정립을 위한 지지와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연구 대상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단위 : 명

학 년	남	여	계
1학년	168	146	314
2학년	145	154	299
3학년	167	142	309
총 계	480	442	922

2. 연구내용 및 기간

이 연구는 2003. 3. 10~2004. 10. 25까지로 구체적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3. 연구도구 및 조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신체상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로서, 선행연구 자료들 신유정(1993), 백숙희(1998), 염경숙(2000), 임소연(2000)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설문내용의 적합도를 검토한 후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여 조사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신체상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수준이 높게 평가되며, 성형수술 허용도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도가 높게 평가된다.

1) 사전 조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사전조사는 안양시 B중학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

전조사는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1차 목적을 두고 설문지 응답 시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대상자들에게 지적하도록 한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 조사

이 조사는 2003. 12. 1~2003. 12. 20까지 표집 대상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실시상의 주의점을 알려주고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응답케 하는 자기 기입법(Self-recording)을 사용하였다.

3) 설문지의 구성

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서 개인적 특성 8문항, 신체상에 관한 14문항, 성형수술 허용도에 대한 11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표 III-3>과 같다.

표 III-2. 연구내용 및 기간

순서	연구내용	연구기간
1	연구계획 및 자료수집	2003. 3.10~2003. 4.30
2	설문지 작성	2003. 5. 1~2003. 6.30
3	사전조사 실시	2003. 9. 1~2003.10.30
4	설문지 검토 및 수정	2003.11. 1~2003.11.30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	2003.12. 1~2003.12.20
6	자료처리 및 분석	2004. 2. 1~2004. 5.30
7	논문 작성	2004. 6. 1~2004.10.25

표 III-3.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개인적 특성	학년, 성별, 성격, 가정형편, 성적, 적응, 행복감 등	8	1~8
신체상 지각수준	외모 : 시각적(5) 건강 : 기능적(5) 신체호감도 : 정의적(4)	14	4, 5, 7, 8, 10 1, 6, 12, 13, 14 2, 3, 9, 11
성형수술 허용도	생각, 느낌, 경험, 주위 반응, 동기, 찬성과 반대 등	11	1~11
계		33	

표 IV-1.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학년	1학년	314	34.1
	2학년	299	32.4
	3학년	309	33.5
성별	남자	480	52.1
	여자	442	47.9
성격	외향적	513	55.6
	내향적	388	42.1
	무응답	21	2.3
부모의 경제상태 (월수입)	100만원 미만	32	3.5
	100만원~200만원	226	24.5
	200만원~300만원	279	30.3
	300만원~400만원	167	18.1
	400만원 이상	153	16.6
	무응답	65	7.0
성적	반에서 10등 이내	243	26.4
	반에서 10~20등	259	28.1
	반에서 20~30등	225	24.4
	반에서 30~40등	160	17.4
	반에서 40등 이상	15	1.6
	무응답	20	2.2
주위 상황이나 환경변화 적응력	매우 잘 적응한다	148	16.1
	잘 적응하는 편이다	452	49.0
	보통이다	234	25.4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58	6.3
	적응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8	.9
	무응답	22	2.4
친한 친구 수	없다	11	1.2
	1~2명	42	4.6
	3~4명	144	15.6
	5~6명	170	18.4
	7명 이상	543	58.9
	무응답	12	1.3
행복정도	매우 행복하다	292	31.7
	행복하다	392	42.5
	그저 그렇다	182	19.7
	행복하지 않다	24	2.6
	불행하다	19	2.1
	무응답	13	1.4
계		922	100.0

4. 자료 처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 중 무성의한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제외하고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지각 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정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3) 중학생의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이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2.1%, 여자가 47.9%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34.1%, 2학년이 32.4%, 3학년이 33.5%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으로는 외향적 성격이 55.6%, 내향적 성격이 42.1%였다.

부모의 경제상태(월수입)는 200만원~300만원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200만원이 24.5%, 300만원~400만원이 18.1%, 400만원 이상이 16.6%, 100만원 미만이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반에서 10~20등이 28.1%로 가장 많았고, 10등 이내가 26.4%, 20~30등이 24.4%, 30~40등이 17.4%, 40등 이상이 1.6%로 나타났으며, 학급 인원을 4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인원수가 줄어들어 30~40등이나 40등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위 상황이나 환경변화적응력을 살펴보면 잘 적응하는 편이다가 49.0%, 보통이다가 25.4%, 매우 잘 적응한다가 16.1%,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가 6.3%, 적응하기 아주 곤란하다가 0.9%로 나타나 대체로 가정이나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친한 친구 수는 7명 이상이 58.9%, 5~6명이 18.4%, 3~4명이 15.6%, 1~2명이 4.6%, 없다가 1.2%로 나타났으며 가정이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정도는 행복하다가 42.5%, 매우 행복하다가 31.7%, 그저 그렇다가 19.7%, 행복하지 않다가 2.6%, 불행하다는 2.1%로 나타났다.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지각수준

<표 IV-2>에서 보면,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지각수준의 차이는 학년별로 3학년이 $M = 3.09$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1학년은 $M = 3.07$ 점, 2학년이 $M = 3.02$ 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성별에 따른 신체상 지각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는 $M = 3.09$ 점으로 남자 $M = 3.03$ 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10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신체 만족도가 낮으며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더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정승교, 박종성 1997)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

성격별로 살펴보면 외향적 성격은 $M = 3.11$ 점으로 내향적 성격의 $M = 3.00$ 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p < .01$), Smith(1982)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나, 염경숙(2000)의 결과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의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 상태(월수입)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우 $M = 3.02$ 점으로 낮았으며 300만원~400만원의 경우 $M = 3.21$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성적별로는 반에서 10등 이내가 $M = 3.10$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한 친구 수는 1~2명과

표 IV-2.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상 지각수준

	변 인	M	SD	F	p
학년	1학년	3.07	.35	3,540*	.029
	2학년	3.02	.34		
	3학년	3.09	.36		
성별	남자	3.03	.35	-2.362*	.018
	여자	3.09	.34		
성격	외향적	3.11	.35	18.768**	.000
	내향적	3.00	.35		
부모의 경제상태 (월수입)	100만원 미만	3.02	.35	3.113*	.015
	100만원~200만원	3.06	.33		
	201만원~300만원	3.11	.31		
	301만원~400만원	3.21	.50		
성적	400만원 이상	3.04	.38	1.223	.300
	반에서 10등 이내	3.10	.35		
	반에서 11~20등	3.06	.33		
	반에서 21~30등	3.03	.33		
	반에서 31~40등	3.06	.41		
주위 상황이나 환경변화 적응력	반에서 41등 이상	2.97	.39	3.833**	.004
	매우 잘 적응한다	3.14	.43		
	잘 적응하는 편이다	3.07	.34		
	보통이다	3.13	.38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3.00	.31		
	적응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3.01	.32		
친한 친구 수	없다	2.91	.50	1.583	.177
	1~2명	3.08	.55		
	3~4명	3.03	.36		
	5~6명	3.03	.25		
	7명 이상	3.08	.35		
행복정도	매우 행복하다	3.12	.38	4.431**	.001
	행복하다	3.09	.25		
	그저 그렇다	3.04	.33		
	행복하지 않다	3.01	.33		
	불행하다	2.92	.44		

*p<.05, **p<.01

7명 이상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위상황이나 환경 변화의 적응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매우 잘 적응하는 경우 $M = 3.14$ 점으로 가장 높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M = 3.00$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 .01$), 행복 정도에 따른 신체상 지각수준 차이에서는 매우 행복하다는 경우 $M = 3.12$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행하다는 경우 $M = 2.92$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3. 성형수술에 대한 분석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긍정적 24.2%, 부정적 11.2%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대체로 낮다고 할 수 있어, 성형수술에 대해 허용적인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표 IV-3>.

성형수술 받기 원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받고 싶지 않다가 69.4%로 받고 싶다는 29.4%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의 39.5%가 성형을 원한다는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한국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2004) 자료보다 낮은 수치로서, 지역적, 남학생이 더 많은 구성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표 IV-4>.

성형수술 받기를 원할 때, 어떤 수술을 받고 싶은지를 살펴보면 피부 박피술(점, 사마귀 등 뽕), 기타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코수술이

30.6%, 쌍꺼풀 수술이 22.1%, 지방제거 10.0%, 유방성형 수술이 1.5%의 순으로 나타나 성인과 마찬가지로 노출부위에 대한 성형수술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임소연(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표 IV-5>.

수술 받기를 원하는 부위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 유무를 살펴보면 지장 없다가 73.4%로 지장 있다는 22.9%보다 높게 나타나 신유정(1993), 염경숙(2000)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했다<표 IV-6>.

수술 받기를 원할 경우 수술 후 변화의 기대를 살펴보면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가 25.1%, 매우 좋아질 것이다가 16.6%, 약간 좋아질 것이다가 8.9%,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3.8%정도가 수술 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표 IV-7>.

수술을 받으려는 동기나 이유에서는 평상시 만족하지 못해서가 42.1%로 가장 높았고, 용모를 더욱 가꾸기 위해서 37.6%,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가 8.5%, 기타가 7.4%, 대인관계에서 어려

표 IV-3.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	백분율
매우 바람직하다	112	12.1
바람직하다	112	12.1
그저 그렇다	585	63.4
조금 창피하게 생각한다	82	8.9
매우 창피하게 생각한다	21	2.3
무응답	10	1.1
계	922	100.0

표 IV-4. 성형수술 받기 원하는지 여부

구 분	빈도	백분율
받고 싶다	271	29.4
받고 싶지 않다	640	69.4
무응답	11	1.2
계	922	100.0

표 IV-5. 성형수술 원할 경우 받고 싶은 수술

구 분	빈도	백분율
쌍꺼풀 수술	60	22.1
코 수술	83	30.6
유방성형수술	4	1.5
지방 제거 수술	27	10.0
피부 박피술, 기타	93	34.3
무응답	4	1.5
계	271	100.0

표 IV-6. 수술 받기를 원하는 부위의 일상 생활시 지장 유무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62	22.9
없다	199	73.4
무응답	10	3.7
계	271	100.0

표 IV-7. 수술 받기를 원할 경우 수술 후 변화의 기대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좋아질 것이다	45	16.6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31	48.3
약간 좋아질 것이다	24	8.9
잘 모르겠다	68	25.1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2	.7
무응답	1	.4
계	271	100.0

표 IV-8. 수술을 받으려는 동기나 이유

구 분	빈 도	백분율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9	3.3
평상시 만족하지 못해서	114	42.1
용모를 더욱 가꾸기 위해서	102	37.6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23	8.5
기타	20	7.4
무응답	3	1.1
계	271	100.0

표 IV-9. 성형수술 여부

구 분	빈 도	백분율
있다	30	3.3
없다	856	92.8
무응답	36	3.9
계	922	100.0

움이 있다가 3.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8).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없다가 92.8%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점을 빼거나 흉터를 없애는 것이 성형수술이냐는 질문이 많았던 것과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어,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표 IV-9).

성형수술을 받았을 경우 어떤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피부 박피술, 기타가 83.3%로 가장 많았으며 쌍꺼풀 수술이 6.7%, 코 수술, 지방 제거 수술이 각각 3.3%의 순으로 나타나 노출 부위의 수술을 주로 원했던 성인들의 조사와 일치한다(표 IV-10).

성형 수술을 받았을 경우 누구의 권유로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가족의 권유가 56.7%, 본인 스스로가 36.7%, 기타가 3.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1).

성형수술을 받은 결과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그저 그렇다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한다가 26.7%, 불만이다가 16.7%, 매우 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스럽다가 각각 6.7%로 나타났으며 만

표 IV-10. 성형수술을 받은 종류

구 분	빈 도	백분율
쌍꺼풀 수술	2	6.7
코 수술	1	3.3
지방 제거 수술	1	3.3
피부 박피술, 기타	25	83.3
무응답	1	3.3
계	30	100.0

표 IV-11. 성형수술을 받았을 경우 권유자

구 분	빈 도	백분율
본인 스스로	11	36.7
가족	17	56.7
기타	1	3.3
무응답	1	3.3
계	30	100.0

표 IV-12. 성형수술을 받은 결과의 만족도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만족한다	2	6.7
만족한다	8	26.7
그저 그렇다	11	36.7
불만이다	5	16.7
매우 불만스럽다	2	6.7
무응답	2	6.7
계	30	100.0

표 IV-13. 수술 후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의 반응

구 분	빈 도	백분율
매우 긍정적	3	10.0
긍정적	16	53.3
부정적	4	13.3
매우 부정적	1	3.3
무관심	4	13.3
무응답	2	6.7
계	30	100.0

족하는 경우는 33%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의 불일치와 기능보다는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심리적인 특성에서 기인하는 결과이다(표 IV-12).

수술 후 가족 또는 주위사람들의 반응을 살펴 보면 긍정적 반응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부정적 반응과 무관심이 각각 13.3%, 매우 긍정적 반응이 10.0%, 매우 부정적 반응이 3.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3).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형수술 허용도

〈표 IV-14〉에 나타난 대로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형수술 허용도는 학년별로 3학년이 M = 2.88점으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은 M = 2.78점, 1학년은 M = 2.65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성형 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성별에서는 남자는 M = 2.63점, 여자는 M = 2.93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성형 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자에게 있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남자보다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결과(변금순 외 1999, 임소연 2000)와 일치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성격별로는 외향적 성격이 M = 2.80점으로 내향적 성격 M = 2.73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아니었으며, 이는 염경숙(2000)의 결과와도 같았다.

부모의 경제상태(월수입)별로는 200만원~300만원이 M = 2.8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적별 차이에서는 반에서 10등 이내와 10~20등이 각각 M = 2.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30등은 M = 2.73점, 30~40등은 M = 2.7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40등 이상은 M = 2.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성적이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위 상황이나 환경변화의 적응력에서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가 3.01로 가장 허용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잘 적응한다가 높게 나온 염경숙(2000), 백숙희(199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친한 친구 수에서는 5~6명이 M = 2.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p < .05$) 없다가 2.72, 7명이상이 2.71로 나타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다.

행복 정도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경우 M = 2.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행한 경우는 M = 2.84점, 행복하다는 M = 2.81점, 그저 그렇다는 M = 2.79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행복하다는 경우 M = 2.6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염경숙(2000)의 행복하다가 높게 나온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성형수술 허용도

변 인		M	SD	F	p
학년	1학년	2.65	.93	5.592**	.004
	2학년	2.78	.80		
	3학년	2.88	.80		
성별	남자	2.63	.91	-5.360**	.000
	여자	2.93	.75		
성격	외향적	2.80	.83	1.429	.232
	내향적	2.73	.88		
부모의 경제상태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1	1.05	.277	.893
	100만원~200만원	2.73	.87		
	200만원~300만원	2.80	.81		
	300만원~400만원	2.78	.81		
	400만원 이상	2.74	.93		
성적	반에서 10등 이내	2.80	.82	.551	.698
	반에서 10~20등	2.80	.82		
	반에서 20~30등	2.73	.85		
	반에서 30~40등	2.72	.97		
	반에서 40등 이상	2.64	.84		
주위 상황이나 환경변화 적응력	매우 잘 적응한다	2.75	1.03	1.326	.258
	잘 적응하는 편이다	2.74	.80		
	보통이다	2.75	.81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3.01	.90		
	적응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2.80	1.04		
친한 친구 수	없다	2.72	1.27	2.929*	.020
	1~2명	2.56	.94		
	3~4명	2.88	.81		
	5~6명	2.90	.79		
	7명 이상	2.71	.87		
행복정도	매우 행복하다	2.68	.94	1.079	.365
	행복하다	2.81	.74		
	그저 그렇다	2.79	.87		
	행복하지 않다	2.87	.99		
	불행하다	2.84	1.38		

*p<.05, **p<.01

표 IV-15.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신체상
A1	1.00														
A2	.266**	1.00													
A3	.235**	.298**	1.00												
A4	.262**	.279**	.389**	1.00											
A5	.143**	.485**	.259**	.279**	1.00										
A6	.399**	.218**	.288**	.282**	.169**	1.00									
A7	.052	.037	.061	.226**	.012	.077*	1.00								
A8	.068*	.197**	.113**	-.081*	.218**	.095**	-.179**	1.00							
A9	.124**	.260**	.168**	.021	.244**	.148**	-.101**	.617**	1.00						
A10	.036	.242**	.105**	-.079*	.279**	.109**	-.197**	.671**	.599**	1.00					
A11	-.139**	-.065	-.083*	-.332**	-.048	-.034	-.162**	.266**	.184**	.290**	1.00				
A12	-.217**	-.181**	-.434**	-.257**	-.111**	-.265**	.010	-.051	-.129**	-.026	.108**	1.00			
A13	-.223**	-.065	-.096**	-.062	-.071*	-.102**	-.088**	.076*	.009	.061	.136**	.146**	1.00		
A14	-.309**	-.079*	-.154**	-.119**	-.073*	-.160**	-.021	.067*	.016	.097**	.189**	.234**	.510**	1.00	
허용도	.096**	.032	.115**	.212**	.069*	.026	.153**	-.169**	-.108**	-.190**	-.231**	-.119**	-.084*	-.063	1.00

*p<.05, **p<.01

A1 건강정도, A2 신체매력 정도, A3 몸의 귀중함 인식정도, A4 현재모습의 만족정도, A5 타인의 외모 평가, A6 활동 지장 정도, A7 신체만족 정도, A8 외모 신경쓰는 정도, A9 용모개선 노력 정도, A10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도, A11 몸의 변화 요구도, A12 몸의 가치 정도, A13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 A14 몸이 아픈 정도

5.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

신체상 지각수준 전체와 성형수술 허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r = -.121$ 로 나타나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상 지각수준이 높을 때 성형수술 허용도가 낮았으며, 지각수준이 낮은 경우 성형수술 허용도가 높았다. 이는 임소연(2000), 염경숙(2000), 백숙희(1998), 신유정(1993), 이경희(1991)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표 IV-15〉의 항목별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정도(a1) 요인과 몸의 귀중함 인식 정도(a3) 요인, 현재모습의 만족정도(a4) 요인, 타인의 외모 평가(a5) 요인, 신체적 만족도 정도(a7) 요인, 외모 신경정도(a8) 요인, 용모 개선 노력 정도(a9) 요인,

남에게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 정도(a10), 몸의 변화 요구도(a11), 몸의 가치 정도(a12),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a13)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건강정도와 몸의 귀중함 인식 정도, 현재 모습의 만족도, 타인의 외모 평가, 신체적 만족도 정도, 몸의 변화 요구도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을 때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소연(2000)의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신체상이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내 몸의 어떤 부분은 달라졌으면 한다'였는데 이는 성형수술 환자나 일반인들이 신체 중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부위가 많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 남에게 항상 예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 정도, 용모 개선 노력 정

도가 낮을 때 성형수술 허용도가 높으며, 몸의 가치 정도를 낮게 생각할 때와 쉽게 피곤함을 느낄 때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체 매력 정도(a2), 활동 지장 정도(a6), 몸이 아픈 정도(a14)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신체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복 추구나 비만, 학업성취, 질병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구희서 1989, 조지숙 1992, 우정숙 1993, 신관호 1996, 김선아 1997, 김용주 1999, 배진희 1999, 권기택 1999, 김도영 2000, 이재창 외 2001, 하주연 2002 등). 또한 성형수술에 관한 연구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 전후의 신체상이나 자기존중감 비교연구, 정신건강과의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김춘미 1986, 이경희 1992, 신유정 1994, 변금순 1997, 백숙희 1998, 염경숙 2000, 임소연 2000, 지경환 외 2001, 김주현 2002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신체상 정립이 인격 형성과 자기존중감, 부적응이나 학업성취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계속되는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바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신체상 정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낮은 신체상을 가진 학생들이 성형수술 허용도가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신체, 정신적인 건강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형수술의 신체, 정신적인 부작용과 시간, 비용은 차치하고 학생들이 외모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회병리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청소년들의 신체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진단,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와,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 급별, 남녀별로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들이 자기 신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욕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심리적인 기전, 신체상과 성형수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무분별한 성형수술에 대한 조언과 효과적인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2개 지역에 위치한 4개 학교의 남녀 중학생 96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처리가 가능한 922명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개인적 특성과 신체상 지각수준을 살펴 보면, 학년에 따른 신체상 지각수준은 3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1학년, 2학년 순이었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향적 성격이 내향적 성격보다 지각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의 월수입이 200만원 이하보다 이상에서 대체로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주위상황이나 환경 변화의 적응력에 따른 차이에서는 잘 적응할수록 지각수준이 높았다. 행복한 정도에서는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의 경우 지각수준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적응을 잘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중산층의 외향적 성격의 여자 중학생이 대체로 신체상 지각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과 성형수술 허용도에서는 학년별로 3학년이 가장 높았고, 2학년, 1학년의 순서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외향적

성적이 내향적 성격보다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월수입, 성적, 주위 상황 적응력이나 행복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수술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신체상 지각수준과 성형수술 허용도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신체상 지각수준이 높을 때 성형수술 허용도가 낮았으며, 지각수준이 낮은 경우 성형수술 허용도가 높았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몸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 정도, 현재 모습의 만족도, 타인의 외모 평가, 신체적 만족도 정도, 몸의 변화 요구도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을 때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외모에 신경 쓰는 정도, 남에게 항상 예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 정도, 용모 개선 노력 정도가 낮을 때 성형수술 허용도가 높으며, 몸의 가치 정도를 낮게 생각할 때와 쉽게 피곤함을 느낄 때 성형수술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체 매력 정도, 활동에 지장을 느끼는 정도, 몸이 아픈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들의 성형수술 요구도는 여학생 41%, 남학생 20.2%가 원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이제까지 성인들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상이 낮거나 부정적 지각수준에서 성형수술 허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신체상 지각수준은 최저 2.91에서 최고 3.21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성형수술 허용도는 개인적인 신체상 과도 관련되지만 바로 이 신체상이 마스크와 주위 환경, 사회적인 유행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과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점점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허용도가 높아지고, 특히 취업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75% 이상이 찬성(경향신문 2004. 10. 24)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남녀 구분 없이 성형수술 열풍에 휩싸여 있으며,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성형수술은 앞으로 더욱 일반화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원하게 될 것이다.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 즉 '신체를 위한 자아'가 아닌 '자아를 위한 신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신체상 이해를 통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외모나 신체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도, 조언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면 미성숙한 상태의 중학생들이 무분별한 성형수술을 받거나 그 부작용으로 고민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상 정립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외모에 대한 고민이나 성형수술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거나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로 덮어두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이론적인 지식과 실례를 들어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제언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 보다 효용성을 높이고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나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Cash, T.F(1990), Mendelson & White (1982), Secord & Jourard(1953) 등 10년 이상 지난 외국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쓰고 있는바, 우리 현실과 대상에 맞는 신체상 측정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Sankowsky(1981), 김희진(1990), 배진희(1999) 등의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과

Cash(1996)와 황효정, 김교현(1999)의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정도가 있는데, 좀 더 다양하고 청소년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도의 인접한 두 시의 일부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평균적인 결과라고 하기 어렵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신체상과 성형수술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 적용이나 장애 체험, 장애인 봉사활동, 병원 봉사활동 등 신체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의 신체상과 성형수술에 대한 비교 연구가 후속 연구로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강진성(1988). 성형외과학.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2. 구희서(1989). 요통환자의 신체상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6(1).
3. 권기덕(1999). 신체상에 관한 연구(Ⅱ).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지, 6(3), 109-123.
4. 김도영(2000).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김봉숙(1987). 노화단계에 따른 장년 및 노인의 신체상과 신체적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김선아(1997). 청소년 건강 관련 학령기 비만아동의 신체상 관련요인 분석. 간호학 탐구, 6(2).
7. 김소야자(1990).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 수문사.
8. 김애경(1998). 요실금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0(3).
9. 김용주(1999).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추구태. 이화여자대학교.
10. 김원경·박정희(2001). 현실요법에 기초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체중조절과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4(2).
11. 김재숙·이미숙(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12. 김주현(2002). 미용성형수술의 실태 및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3. 김춘미(1986). 성형재건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의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박미희(1983). 질병과 수술이 성인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배진희(1999). 신체상 개선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자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백세민(1987). 미용성형외과학. 서울 : 군자출판사.
17. 백숙희(1998). 성형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8. 변금순(1997). 미용성형 수술이 환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 변금순 외 3(1999). 미용성형수술과 정신건강. 신경정신의학, 94-104.
20. 변해심(1997). 에어로빅스 운동 참여가 여성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1. 송인섭(1998). 인간 심리와 자아 개념. 서울 : 양서원.
22. 신관호(1996). 아동의 신체존중감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위 차이.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3. 신유정(1994). 성형수술환자의 수술 전후 신체상 및 자존감에 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4. 염경숙(2000). 부산지역 일부 여성들의 성형수술 시술 실태 및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5. 오상은(1999). 지지간호중재가 암환아의 신체상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9(3).
26. 우정숙(1993). 아동의 신체상과 섭식행동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7. 이경희(1992). 미용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의 신체상과 자존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8. 이수현·현명호(2001). 여중생의 비만도와 신체상 만족도 및 폭식행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29. 이승찬(2000). 반흔 성형수술시 진피내 봉합술에 대한 실험적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0. 이윤호 외 25(1998). 미용성형외과학. 서울 : 군자출판사.
31. 이재창·임용자(1994). 사춘기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연구의 생물 사회적 접근 모형. 홍익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32. 임경애(1995). 중증 뇌성마비아의 신체상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25(1).
33. 임소연(2000). 미용성형수술 환자와 일반인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4. 장효순(1992). 신체상에 관한 개념 분석. 예수간호전문대학 논문집 8(1).
35. 전진영·김행자(1996). 유방절제술 환자의 신체상, 배우자지지,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8(2).
36. 정금희(1988). 자궁적출술 환자의 신체상과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7. 정추자(1985). 지지적 집단간호가 하지골절 환자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5(3).
38. 조만태·오주훈(2000). 여대생의 생활체육 참가가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2).
39. 조명옥(1985). 외상환자의 신체상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0. 조선명(200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1. 조지숙(1992). 청소년의 신체상·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2. 지경환·이상익(2001). 미용성형수술 환자의 심리적 특성과 미용수술이 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회지, 40(4), 559-569.
43. 최기주(2001).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스트레스, 대응전략, 우울.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4. 하주연(2002).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선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5. 한미정(2000). 신체이미지 관련 TV 메시지의 처리방식이 여대생의 신체만족감과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4(3).
46. 황준승(2002). 요도하열 환자에서 요도성형수술 후의 치료성적 비교.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7. Adams, G. R.(1977).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 Toward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beauty. *Hum Dev*, 20, 217-239.
48. Berscheid, E., Dion K. K., Walster, E., & Walster G.(1971).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ating choice. A test of the matching hypothesis. *Journal of Experi-*

- mental Social Psychology*. 7, 173-180.
49. Brown, M. S.(1977). *Normal development of body image*.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50. Cash, T. F.(1990). *The multidimensional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and Software.
 51. Dion, K. K., Berscheid, E., & Wals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 social Psychology*. 24, 285-290.
 52. Fisher, S.(1986). *Development and structure of the body image*.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53. Fisher, S., & Cleveland, S. E.(1971). *Body Image and Personality*. New York : Dever Publication, Inc.
 54. Freud, S.(1961). *The Ego and the Id*. New York : W, W, NORTON & Co. 15-7.
 55. Harnish, R. J., & Sullivan, L. A.(1987). Body image, self-monitoring and gender, *the paper presented at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5th)*.
 56. Jasmin, S., L. N. Trygstad,(1979). *Behavioral concept and the Nursing Proceed*. London : Mosby company.
 57. Kolb, L. C.(1959). *Disturbance of the body image*. In L. C. Kolb et al. *American hand book of psychiatry*. 749-769.
 58. Medinnus, G. R., & Johnson, R. C. (1976).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59. Noles, S. W., Cash, T. F., & Winstead, B. A.(1985).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8-94.
 60. Norris, C. M.(1970). *The professional nurse and body image*, *Behaviral concepts & nursing intervention*. J. B. Lippincott co. 39-65.
 61. Penner, L. A., Thompson, J. K., & Coover, D. L.(1991). Size overestimation among anorexics : much ado. about very litt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90-93.
 62. Rodin, J., & Stoddard, P.(1981). *Pre-dictors of Attitude Weight and Eating*. New Heaven : Yale University.
 63. Rubin, R.(1968). Body Image and Self-Esteem. *Nursing Outlook*. 16(6). 20-24.
 64. Secord, P. E., & Jourard, S. M.(1953).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7, 343-347.
 65. Secord, P. E., & Jourard, S. M.(1955). Body cathexis and ideal female fig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243-246.
 66. Shontz, F. C.(1974). Body Image and its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15(4). 461-472.
 67. Strauman, T. J., Vookles, J., Berenstein, V., Chainken, S., & Higgins, E. T. (1991). Self-discrepancies and vulnerability to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946-956.
 68. Stuart and Sundeen.(1983). *Principle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St. Louis : Mosby.
 69. Wassner, A.(1982).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Trauma on Body 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9(3). 86-90.